

김 다 인 *Dain, Kim*

Education

2017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한국화전공
2020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Contact

Phone 010-7174-3095

E-mail ekdls3095@naver.com

Instagram today.s_universe

Blog <https://blog.naver.com/dadacha13>

개인전

- 2024 '엉뚱한 공존' 초대전 (갤러리 아트14/화순)
- 2023 'I am i: 모든 이에게 바라는 공존' 하반기 기획초대전 (북구청갤러리/광주)
- 2023 '공존: 오늘의 유니버스(Today's Universe)' 개인전 (민아트갤러리/광주)
- 2022 '나와 공존으로부터' 초대전 (갤러리 양림148/광주)
- 2019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공존' 청년작가 전시공모선정 (금호갤러리/광주)

단체·그룹·기획전

- 2025
- '조대의 미술, 내일을 그리다' 청년작가 기획전 (김보현 & 실비아올드 미술관/광주)
- 'Piece by Youth' 청춘소품展 (갤러리 현/광주)
- '아트블리츠 광주' (김넷과 갤러리, 영무파라드오피스텔 공실/광주)
- 'Synapse' 2인전, (빛고을시민문화관/광주)
- 'Blue Shine' 광주청년미술작가회 초대전 (자미갤러리/광주)
- '25 청미' 광주·대구 청년미술작가회 달·빛 교류展 (송정작은미술관/광주)
- '함께의 이유' 제38회 선목회 정기전 (조선대학교 미술관/광주)
- '빛과 대지의 이야기' 대구·광주 청년미술작가회 교류展 (아양갤러리/대구)
- 'RE: Informel' 에쁘고 기획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 '도시청년 유목민' 광주청년미술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갤러리 충장22)
- '월출산 화(畵)씨 뿌리다6 - 보이는 것과 볼 수 있는 것' (월출산 갤러리/영암)
- '第二圖: 모호한 계절' 아트그룹 동그라미 정기전 (갤러리71Seoul/서울)

소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 북구청, 조선대학교병원 외 다수 소장

현재 선목회, 광주미술협회, 광주청년미술작가회, 북구미술인조형연구회,
아트그룹 동그라미, 사단법인 현대미술 에쁘고회 회원

아날로그적 감수성(感受性)에서 찾은 행복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으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전자기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거실 한 가운데 세상의 면면을 둘러볼 수 있는 장치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TV 보급이 시작되며,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는 동안 마을의 한 집에 모여 TV를 보는 집단시청 풍속도 생겨났다가 이후 점차 사그라들었다. TV는 오랫동안 정부의 홍보 매체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일등 살림살이였다. 그런 TV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화면에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 곧 성공의 기준으로 통하기도 하였다. ‘아무나’가 등장하는 곳이 아닌, ‘주인공’만이 출연할 수 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앉았다.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뉴스, 드라마, 광고 등에서 희열을 느끼는 공통 감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작가 김다인은 이러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행복했던 추억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단란한 가족들이 모여 앉았던 기억을 소환해냈다. 옛날식 TV에서 보았던 인물들의 표정이나 감정을 화면이 터질만큼 큰 얼굴로 옥여넣어 표현했다. 요즘은 자아의 확장, 우주로의 상상을 펼쳐내며 자신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레트로(Retro)’란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려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이러한 복고풍의 시선으로 김다인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텔레비전은 곧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며, 인생은 곧 자기 자신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나’는 언제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특별한 하루를 꿈꾸고 있다. 작가는 이것을 ‘우주(Universe)’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엉뚱한 공존을 즐기며 하루하루가 재밌다고 말한다. 추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자아를 인식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쇼(Show)’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아닌,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다소 과장되게 찌그러진 표정일지라도,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생각의 분출을 화폭 속에 담아냄으로써 싱싱하게 살아있고, 살아가는 스스로를 독려하는 것이다. 파닥이며 전진하는 세월 속에 꿈틀거리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내보이는 것이 우리내 인생이며, 가공되지 않은 삶, 그 자체의 생명력이 더 질기다는 것을 우의적(寓意的)으로나마 알려주고 있다.